

UN이 실시한 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 여론 조사에서
지구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글로벌 비상사태'로 인식

UN 뉴스 2021.01.27.자 기사
APCC 전문위원 김세원 번역

UN은 기후 여론 조사를 새롭게 실시해 이번 수요일(1.27)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20만 명 이상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이 중 거의 **3분의 2가 기후변화를 전세계적인 비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더 과감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사상 최대라 일컬어지는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의 “People’s Climate Vote” 라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사람들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기후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는 50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이들 국가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UNDP 사무총장 Achim Steiner는 보도자료에서, “조사 결과는 긴급 기후행동이 전 세계 사람들 사이에서 국적, 연령, 성별 및 교육 수준을 불문하고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라고 말했다.

여론조사는 또한 정책입안자들이 기후 위기에 대처해줄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원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기후 친화적 농업에서 자연 보호와 코로나19 이후 녹색 회복에 대한 투자에 이르기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기후 논쟁의 최전선에 전달될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 엄청난 도전을 헤쳐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때 국가들이 대중의 지원을 받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 줍니다.” 라고 Steiner는 덧붙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설문 조사'

UNDP는 이번 여론 조사가 기후변화에 관한 여론 조사에 있어서 사상 최대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금년 11월에 열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6)에 참가할 국가들이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함께 이뤄졌기 때문에 그들의 응답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사는 응답자들에게 다음 사항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 기후변화가 글로벌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는지
- 6개의 행동요구 대상 분야 즉 경제, 에너지, 운송, 식량 및 농장, 자연, 사람 보호 등에 관한 18가지 주요 기후 정책을 지원하는지 여부

조사 대상이 된 120만 명 중에는 **18세 미만이 50만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아직 나라에서는 정식 투표연령 층에 들지 않지만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핵심 당사자들**이다. 젊은 응답층이 쉽게 접근하도록 혁신적 방법을 도입하였는데, 모바일 게임 네트워크를 이용한 배포 방법이 그것이다.

UNDP에 따르면 옥스퍼드 대학의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표본의 거대함에 주목하였다. 표본의 규모가 커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가 국민의 연령, 성비, 교육 인구 프로필에서 대표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오차 범위도 작다(+/-2 %).

사람들은 대담한 기후정책을 원해

UNDP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는 “대담한 기후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에너지 부문에서 최대 배출 10대 국가 중 8개국에서 과반수가 재생 에너지 생산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토지 사용 변경으로 인한 배출량이 가장 많고 정책 선호도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보유한 5개국 중 4개국에서 대다수가 산림과 토지 보존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인구의 도시집중이 가장 큰 10국 중 9국은 전기차와 전기버스 또는 자전거 사용을 더 많이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UNDP에 따르면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서 개인의 교육 수준과 기후 행동에 대한 열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점도 발견했다.

기후 비상 사태에 대한 인식은 모든 국가에서 공히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탄(82%), 콩고민주공화국(82%)과 같은 저소득 국가는 물론이고 프랑스(87%)와 일본(82%)까지도 기후 비상 인식은 매우 높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젊은 층은 기후변화가 비상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다른 연령대인 18~35세도 65%로 크게 뒤쳐지지 않았다. 36-59세는 66%; 60세 이상 연령층의 58%가 비상이 맞다고 답했다.